

성경적인 욕구이해를 통한 기독교 상담의 적용 연구

김 성 경*

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욕구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돕고, 욕구를 성경적 상담에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욕구 상담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욕구가 중요한 행동의 이유임에도 현실은, 욕구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무관심한 기독교인들이 많다. 또한 상담 현장에서도 부분적으로 다루긴 하지만 집중적으로 다루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논문은 먼저 심리학적 욕구 이론과 아울러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성경적 관점에서 욕구를 살펴본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하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으나 죄로 인해 욕구도 타락하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욕구 또한 회복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욕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죄가 되므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여기는 마음, 모방, 순종의 대상, 두려움의 측면에서 욕구가 우상이 되는 때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욕구를 성경적 상담에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첫째, 결핍이 내담자에게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어떻게 결핍과 필요를 채울 수 있는지 성경적인 욕구 채움 방법을 살펴본다. 둘째, 욕구조절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맡기기, 목표 바꾸기, 대체하기, 맞서기 등의 방법을 정리한다. 셋째, 원함은 있지만 못하는 부분과 옳고 그름 사이의 고민 등 욕구 간의 충돌을 성경적으로 보고 다루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가 욕구를 성경적 상담에 접목하는 욕구상담 사례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욕구, 동기, 성경적상담, 욕구조절, 욕구충돌

* 욕구코칭연구소 소장

I. 여는 글

욕구는 행동하게 하는 이유이므로 상담에서도 욕구를 아는 것은 필수적이다. 또한 상담의 목적인 진정한 변화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므로 마음 속에 있는 욕구를 깊이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연구자는 욕구를 중심으로 상담과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감정을 먼저 다루지 않고 욕구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큰 공감을 얻게 되고 내담자나 참여자가 아주 빠른 시간에 자신을 파악하고 위로를 얻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물론 감정과 욕구를 함께 다루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욕구만으로도 충분한 공감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욕구를 나쁘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상담 장면에서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허전한 마음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행동으로 드러나거나, 욕구만 향해 치달아서 욕망 혹은 중독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우상이 되어 죄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욕구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죄의 방향으로 나아가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욕구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고, 욕구를 채우려는 방식을 성경적으로 평가하여 선한 방법을 찾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욕구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바로 하고, 내담자의 욕구를 선한 방향 즉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상담자는 욕구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바탕으로 욕구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상담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욕구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욕구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고, 행동하게 하는 힘인 욕구를 집중적으로 상담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한다. 먼저 욕구의 정의와 특성을 살펴보고, 심리학자들의 욕구이론인 Murray의 욕구이론, Maslow의 욕구위계이론, 그리고 Alderfer의 생존, 관계, 성장의 욕구이론, William Glasser의 5가지 욕구를 살펴본 후 이를 성경적 관점으로 점검한다. 그리고 성경적 상담과 욕구를 접목하기 위해 성경적 상담이 어떤 것인지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에서 알아본다. 특히 욕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살펴보고, 욕구를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도 동일한 관점 즉 창조, 타락, 구속으로 살펴본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표현하셨다. 인간은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 타락하면서 욕구 또한 타락하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욕구 또한 회복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나아가 욕구를 성경적으로 다룸에 있어서 죄성 및 우상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다. 결국 원하

는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우상이 되고 죄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성경적 상담과 욕구의 접촉점을 고찰하며, 욕구를 상담에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먼저 내담자의 많은 문제가 욕구 결핍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결핍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고 어떻게 결핍과 필요를 채울지 성경적인 욕구 채움 방법을 제안한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우선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욕구 채움의 방법도 하나님께 의탁하여 가장 선한 방법을 찾도록 한다. 또한 욕구를 억압하거나 욕구에만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조절하는 방법과 욕구간의 갈등을 다룬다. 사람은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원함은 있지만 못하기도 하고, 옳고 그름 사이의 고민 등 상반되는 욕구로 인해 갈등한다. 그러므로 내담자가 가진 욕구간의 충돌 즉 내면 갈등을 성경적으로 바라보고 다루는 것은 내담자의 변화와 성장에 필수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욕구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넘어서 구체적인 욕구 상담으로 사례 연구가 제시되기를 제안한다.

욕구를 주제로 상담적 접근을 한 일반 논문들은 꽤 많다. 특히 Deci와 Ryan의 기본심리욕구와 관련해서는 수많은 연구가 진행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기독교적으로 접근한 것은 소수인데 정은숙(2014)이 동기 이론을 다루면서 기본심리 욕구를 기독교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욕구에 대한 기독교 상담 관련 논문은 김준수(2012)가 동기 이론을 성경적으로 다루면서 욕구를 논하였고, 김준(2018)이 마음 이론 연구를 통해 성경적 관점에서 욕구를 다루었다. 그 외 욕구를 집중적으로 기독교 상담에 접목한 논문은 찾기가 쉽지 않다. 그나마 단행본으로 Stephen Arterburn(2008)이 욕구를 기독교적 관점으로 다루었고 이경희(2023)가 욕망과 영성을 다루면서 욕구를 성경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David Powlison(2012: 216)은 '나는 내가 원한다고 느낄 때 동기 부여가 된다'라는 매슬로우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욕구를 진단하는 것이 동기문제를 성경적으로 다루는 가장 유익한 방법 중 하나라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욕구를 기독교적으로 평가하고 상담에 이론적으로 접목하는 새로운 시도가 될 것이다.

II. 떠는 글

1. 욕구이론과 성경적 비평

1) 욕구의 정의와 특성

욕구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다양하다. 욕구란 사람을 움직이는 심리적 동인이나, 결

핍 혹은 과잉현상이 생길 때 정상상태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며(고영복, 2000), 생리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로 구분한다(강영희, 2014). 또 사람이 구별되는 요인으로 욕구를 정의하기도 한다(김춘경 외, 2016). 욕구(need)와 비슷한 개념들에는 요구(demand)와 욕망(desire)이 있지만 의미상 구분이 된다. 요구는 배고픔처럼 충족될 수 있는 생물학적 욕구의 표현인 동시에, 채울 수 없는 타자의 사랑을 갈망(욕망)하는 표현으로 이중의 기능을 수행한다. 욕망이란 '부족을 느껴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하고자 탐하는 행동과 마음'으로 욕구가 만족되어도 잔여가 남아서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두산백과사전, 2024).

욕구이론은 심리학의 동기 이론을 다룰 때 하위 개념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동기란 '행동에 에너지와 방향을 제공하는 내적 과정인 욕구, 인지 및 정서에 의해 공유되는 공통적인 기반과 동일시되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동기이론에서 욕구란 '생명의 유지와 성장과 안녕의 욕성에 필수적이고 필요한 개체내의 조건'이다. 욕구는 대부분 생리적 욕구와, 심리적 욕구로 나뉜다. 욕구는 생명유지와 안전 그리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행동을 만들어 내는데 이를 위해 결핍, 욕망, 노력 등의 행동을 동기화시킨다. 동기를 만들어 내는 것은 내적동기나 외적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 중 내적 동기에는 욕구와 인지, 정서가 포함된다(Reeve, 2003).

이러한 정의에 따라 욕구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욕구란 인간 행동의 중심 역동으로 행동하는 이유가 된다. 둘째, 감정을 나타내게 하는 동인이다. 욕구가 채워지면 좋은 감정, 채워지지 않으면 부정적인 감정이 나온다. 셋째, 욕구를 사람이 구별되는 요인으로 본다면 욕구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하므로 서로 다름을 구분하는 도구도 될 수 있다. 넷째, 욕구가 동기를 부여하므로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된다. 효과적으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알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며 욕구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진정으로 그 사람을 알게 된다(Fow, 2007). 다섯째, 욕구는 억압된 상태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 욕구는 충족감을 느끼지 못한 채 오래 방치할수록 더 강해지고 더 빨리 채워지기를 재촉하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면 친밀감을 원하는 사람이 거부감과 상실감을 계속 경험하면 낯선 사람과의 짧은 관계에서라도 친밀감을 추구하는 것이다. 물론 짧은 안도감을 경험할 뿐이고 또 다시 갈급해진다(Arterburn, 2008). 여섯째, 욕구는 해석을 돕는 도구이다. 드러난 행동이나 결과에 대해 판단적 접근을 하면 인간 관계에서 수용받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수치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욕구를 안다는 것은 그 행동 이면에 있는 진짜 원하는 것을 파악하게 되므로 판단적 접근을 막을 수 있다. 행동이나 결과가 아니라 욕구라는 관점으로 보기 시작할 때 다르게 해석

하게 된다. 다르게 해석할 때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계획하고 다르게 행동하게 된다 (Powlison, 2012).

2) 욕구이론의 이해

욕구는 동기에 대한 논의에서 주로 발견되는데 김준수(2012)의 논문을 토대로 다른 연구를 참고해서 정리한다. 욕구이론은 역사적으로 동기이론의 일부로 다뤄졌다. 인간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행동에 대한 동기를 이해하는데 욕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동기이론에는 욕구이론과 제어이론이 있다. 욕구이론은 인간을 내부나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여 행동을 선택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보았다. 반대로 제어이론은 인간이 자기 행동을 조절할 수 있고, 행동선택의 최종주체자로 본다.

그 중 욕구이론을 살펴보면, 욕구이론의 뿌리는 쾌락주의라고 할 수 있다. 욕구이론에는 본능에 의해 결정된다는 본능설이 있다. 본능설은 Thomas Aquinas(1225)와 Charles R. Darwin(1809)과 Sigmund Freud(1856)로 이어지면서 행동을 결정하는 동기가 쾌락 원리에 의한 무의식적 본능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Freud는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id)과 동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내면에 숨어있는 욕망을 드러내고, 자기 만족적인 동기를 용납하도록 양심을 순화시키고, 사회에서 용납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기 만족을 이루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내담자 본인이 이기적이라는 것을 수용하기 어려우므로 인간은 오직 충동적인 동물일 뿐이라고 인간의 수준을 낮추어서 수용하도록 하였다. 특히 Freud 학파에서는 가치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쾌락이나 권력을 얻으려는 육체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징후라고 보았다. 또 무신론적 입장에서 욕구는 만족을 위해 의미없는 우연적 사건 일지라도 개인 나름대로 해결책을 구하라고 제안한다. 그러나 Freud를 중심으로 했던 이러한 본능이론은 무의식적 동기가 학습된 것일 수도 있다는 주장에 의해 힘을 잃는다(Crabb, 1995).

이후 1940년대부터 대두된 인본주의적 접근으로 인해 학계가 개인의 욕구나 내적 상태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동기이론은 욕구를 중심으로 자아실현을 위한 욕구, 즉 동기의 내재적 근원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인간의 동기심리를 개인의 욕구차이로 설명하는 다양한 욕구이론이 등장했다(정은숙, 2013). Murray의 욕구이론, Maslow의 욕구위계이론, Alderfer의 생존, 관계, 성장의 욕구이론, William Glasser의 5가지 기본욕구 이론 등이 있다.

Murray는 욕구를 일차욕구(공기, 물, 음식, 성 등)와, 이차욕구(성취, 자율, 경의, 지배 등 심리), 그리고 외현욕구(행동으로 표현된 욕구)와 잠재욕구(드러나지 않고 관습이나 규범의 제약을 받는 것)로 나누었다. Abraham Maslow(1968)는 인간 욕구를 위계로 보았으며, 주된 동기를 결핍욕구와 성장욕구로 보았다. 결핍욕구는 소유, 가치, 존중감 등의 사회적 욕구와 함께 신체적 욕구(음식, 휴식, 안전) 등의 필수적인 것을 포함한다. 성장욕구는 결핍된 것이 채워질 때 드러나며, 자아실현은 성장욕구의 충족으로 이뤄진다(Fow, 2007). Maslow는 욕구란 결핍된 부분 때문에 생기는 필요를 의미하며 비어있는 구멍과 같아서 반드시 채워져야 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결핍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채워져야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Powlison, 2012). Maslow의 욕구 위계이론은 생존-안전-사랑과 소속-존경-자아실현 욕구까지 순차적으로 낮은 수준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더 높은 수준의 욕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Alderfer는 Maslow(1908)의 위계이론을 단순화 시킨 생존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안전, 애정, 존경욕구 포함)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생존욕구와 성장욕구는 Maslow의 생리욕구와 자아 실현 욕구와 비슷하고 관계 욕구는 안전, 애정, 존경욕구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준수, 2012). 현실치료를 만든 William Glasser(1925)는 인간에게는 기본욕구 5가지(생존, 사랑과 소속, 힘, 자유, 즐거움의 욕구)가 있다고 보았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활동하는 모든 것은 내면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행동하는 모든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즐거운 것과 고통스러운 것,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 효율적인 것과 비효율적인 것들이 모두 우리 내면에 있는 강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모든 행동의 동기가 좋은 나쁜 것 간에 외부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적 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면 환경이나 남 탓을 할 수가 없다. 결국 욕구도 선택한 것이다. 좋은 결과가 나오든 나쁜 결과가 나오든 욕구로 인해 선택한 당시에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 것처럼 생각한 것이다(Glasser, 2016).

3) 욕구 이론의 성경적 평가

동기이론 중 욕구이론과 제어이론은 기독교계에서도 학자에 따라 입장 차가 다르다. Lawrence Crabb은 욕구이론에 가깝게 인간을 설명하고 있고, Powlison은 제어이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Crabb은 욕구는 자연스럽게 필요한 것인데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다른 비정상적 방법으로 충족시키려는 시도가 잘못된 것이라는 견해를 갖는다. Powlison은 욕구를 다스리고 제어해야 한다는 인간의 능동적

인 선택의 영역을 강조하면서 욕구의 선택이 신앙적이고 예배적인 문제라고 하였다. 또한 인간행동을 좌우하는 동기부여는 심리적 욕구에 의해 좌우되는 영역이 아니라 신앙적 믿음에 의해 결정되는 영역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누가 그 사람을 다스리느냐가 중요한 것이다(김준수, 2012). 본 연구는 욕구가 자연스럽게 필요한 부분이라는 Crabb의 욕구이론을 기초로 한다. 그러나 Powlison이 말한 것처럼 욕구가 죄와 우상으로 바뀌며 예배의 영역이 될 수 있음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본 논문의 관점은 필요에 따라 두 가지 요소를 모두 복합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욕구 이론의 뿌리가 되는 Freud 학파의 욕구에 대한 관점은 위험하고 논리적으로도 모순이 있다. 숨어있는 욕망을 드러내고 자신의 욕구를 평가없이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인간을 충동적 동물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또한 인간의 가치를 하락시켜서라도 욕망을 충족하려는 행동은 쾌락 지상주의를 그대로 드러낸다. 자기만족만 줄 수 있을 뿐 공동체나 사회적인 도움을 주지도 못한다. 욕구 충족과 자기만족을 위해 양심을 순화시키는 내용은 양심을 둔감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또 Freud 학파는 가치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쾌락이나 권력을 얻으려는 육체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징후라고 하였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가치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영광을 돌릴 때 자기를 가치있게 여기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Crabb, 1995). 하나님은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가치있는 존재라고 명확히 말씀하신다(Sire, 1985).

Maslow의 욕구이론은 이미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자기 실현이 이루어진 사람이 창조력이 뛰어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할 것이라고 가정했지만 증거가 없다. 가치가 육체적 필요보다 강하지 않다는 주장과는 반대로 가치를 위해 죽음까지 불사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자기실현이 노년에 가능하다는 주장도 그릇된 것으로 요즘은 자기 실현에 가장 열정을 보이는 초중고 학교 학생도 만나게 된다. 자기실현은 마지막 단계가 아니어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Vitz, 2010). 또한 Maslow는 결핍은 반드시 채워져야 한다고 하였으나 결핍을 채우면 좋지만 반드시 채워져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결핍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Powlison은 결핍을 채워야만 한다고 욕구에 집착하면 욕구 자체가 절대화되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는 이상화로 갈 수 있다고 말한다(김준수, 2012).

Glasser의 기본욕구 이론에 대한 기독교적 비평은 찾기가 쉽지 않다. 그는 모든 행동의 동기가 좋은 나쁜든 간에 외부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적 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 이는 기본욕구 이론이 본인의 선택이라는 면에서 환경이나 남 탓을 하지 않아 선악간에 책임을 질 수 있기에 기독교적으로 접목하기에 긍정적이다. 그러나 5가지 욕구로 성장의 욕구나 영적인 욕구 등을 담아낼 수 없음을 한계라고 할 수 있다.

2. 성경적 상담의 기초와 특징

1) 성경적 상담의 기초

욕구를 성경적으로 다루려면 성경적 상담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구체적인 방법론 보다는 기초적인 관점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성경적 상담의 기초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관점이다. 황규명(2010)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조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하셨다. 이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의미로 인해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된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방향 제시 없이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음을 나타낸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된 이후 하나님과 연결되어 친밀감을 누리고 하나님의 상담에 의존해서 살았다. 그러나 다른 상담자가 나타나서 유혹했다. 둘째, 타락의 과정을 살펴보면 뱀의 상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고 새로운 생각을 제시했고 그로 인한 행동을 촉구했다. 최초의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죽지 않는다는 뱀의 말 사이에 갈등하다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상담을 선택했다. 죄로 인해 타락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인간은 성경에서 자기 사랑을 악이라고 함에도(딤후 3:1) 자기숭배와 자기사랑의 이론을 받아들여 마치 그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다. 셋째,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변화)할 계획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로 회복되었다. 이렇게 회복이 선언되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영적 전쟁을 하는 중이고 회복되어가는 중이다. 그러므로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에서 내담자를 바라보면 타락한 현재의 상황을 직시할 수 있고,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 가운데 상담이 가능하다.

2) 성경적 상담의 특징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에서 성경적 상담의 특징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첫째, 마음의 변화가 목적이다. 행동만 고치려는 것은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

므로 성경적 상담은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마음이 문제이고 마음이 변해야 함을 내담자에게 가르쳐야 한다. 환경이나 외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삶이 변화되지는 못한다. 사도바울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다(빌 2:5). 상담이 성경적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것을 약속하신다. 나아가 삶도 바꾸실 것이다. 이를 통해 성경적 상담이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성화를 돕는 것이다(Powlison, 2012).

둘째, 성경적 상담의 원리와 방법은 성경에 근거하며 핵심은 바로 복음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딤후 3:16-17). 이 말씀처럼 이미 성경은 교훈도 주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도 하며,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역할로 우리에게 상담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상담의 기준이 되고,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소망을 발견할 수 있고 그분 안에서만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가능하다(황규명, 2010). 또한 Edward Welch(1997)는 성경적 상담의 핵심 원칙은 해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 충만하게 자신을 드러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며 복음의 선포라고 하였다.

셋째, 마음은 누군가의 지배를 받게 된다. 성경적 상담의 관점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시면 다른 사람 혹은 어떤 것이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마음의 우상이다. Powlison(2012)은 하나님 대신에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고 주인이 되며 기쁨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모든 대상을 우상이라고 했다. Crabb(1995)은 성경적 상담은 죄악된 인간적 본성을 따르는 행동 유형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했다. 죄악된 본성을 찾았다면 회개가 필요하다.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해야 한다(빌 4:8). 회개는 성경적 상담의 필수 요소이며 진정한 변화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 가능하다(황규명, 2010).

넷째, 성경적 상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이다. 이 관계라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다. Welch(1997)에 의하면 성경적 상담이란 모든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과 더불어,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삶의 아주 사소한 문제 즉 쓰레기를 버리는 일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종교적이며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해결하려 힘쓰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립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내담자의 문제

속에서 대답해 나갈 때 치유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다섯째, 성경적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도록 돕는 일이다. 최성미(2019)는 성령 하나님의 상담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성경적 상담에 참여한 사람들이 내담자와의 수평적 관계가 의미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두 사람과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정리하자면 성경적 상담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다(고 후 10:5).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회개 및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

3) 성경적 상담과 욕구의 접촉점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성경적 상담은 마음(동기)의 변화를 중요하게 여겼다. Powlison은 욕구를 진단하는 것은 동기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다루는 가장 유익한 방법 중 하나라고 했다. 또 Crabb은 성경적 상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 속에 잠재한 깊은 욕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내야 한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심리적 징후가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이거나 반동적으로 일으키는 현상이기 때문이다(Crabb, 1995). 이처럼 기독교 상담의 저명한 학자들이 욕구로 동기를 파악하여 마음의 변화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Powlison은 염려와 불안에 대해 욕구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을 말한다. 그들에게는 자신이 뭘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뭘 기대하고 추구하는지를 물어보라고 한다. 무엇보다 무엇을 잃어버릴까를 두려워하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Powlison, 2012). Crabb은 가치있는 존재로 여겨지려면 욕구가 채워지는 경험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물론 자신에 대해 특별히 인정할 만한 좋은 점을 느끼지 못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있는 존재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았다. 그리고 성경적 상담으로 이상된 모습을 찾아 회개에 이르는 것이 필요한데 욕구를 통해 이상을 찾을 수 있다. Powlison은 인간의 내면에서 간절히 원하는 즐거움, 권력, 친밀함, 안전, 통제, 명예를 갖고 싶은 욕구들이 마음을 지배하고 통제하여 행동하게 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이 된다고 하였다(김준, 2018).

3. 욕구의 성경적 이해

1) 욕구에 대한 기독교인의 인식

기독교인들을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 욕구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세미나 중에 기독교 대학 학부모들에게 욕구에 대한 이미지를 물었다. 거친 느낌, 본능에 충실한 것, 일방적인 것, 많으면 피곤한 것, 욕심, 절제해야 하는 것, 이성의 반대라는 대답들이 나왔다. 악한 것이나 욕망으로 치부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놓고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임에도 도외시하고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상담 현장에서도 욕구를 다루기는 하지만 부분적이고 대부분 인지나 감정에 초점을 맞춘다. 최근 정서중심치료에서 욕구를 정서에 포함하여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 상담과 관련하여 욕구를 주제로 한 연구는 많지 않기도 하다.

욕구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게 된 이유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욕구에 집착해서 죄로 나아가는 예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욕구를 성경적으로 다룸에 있어서 죄성 및 우상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다. 결국 원하는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우상이 되고 죄를 짓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욕구는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인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행동은 긍정적인 방향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2) 욕구는 악한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기독교인은 특히 욕구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무엇을 바라는 것 즉 욕구 자체가 죄는 아니라고 말한다. Arterburn (2008)에 의하면 욕구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니고,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 문제는 부주의한 방식으로 욕구를 추구했을 때이다. 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하게 창조되었으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욕구를 죄된 방식으로 채우려고 한다. 황규명(2018)은 욕구가 어떻게 죄악이 되는지 단계로 설명한다. 처음에는 주시기를 구하다가, 요구단계로 나아가 반드시 그것을 얻어야 한다고 여기며, 그 다음엔 필요의 단계로 나아가 없으면 안되는 것이 된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욕망 때문에 필요로 확신하는 것이다. 또 이것을 타인이 채워주기를 기대하게 되고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하며 상대에게 별을 주게 된다. 이렇게 우리의 선택과 행동은 항상 내 마음을 지배하는 욕구를 드러낸다. 그러므로 적절한 욕구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반면 Powlison(2012)은 본능적인 욕구가 선하다는 것은 어떻게든 충족시켜야만 한다는 전제에 머무는 것으로 이것은 자기중심적 자아에 대해 견고한 성을 둘러 지켜주는 행위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한다. 욕망은 어떤 대상에 대한 길들여지지 않고 혼란하며 무절제한 애정이며 선택의 문제라고 보았다. 그 자체로 자기중심적인 처사에 지나지 않을 뿐인 것이다. 실제로 욕구 자체는 선하게 창조되었더라도 타락했기 때문에 악하게 태어난 것도 맞다. 이에 본 연구는 욕구 자체는 선하게 창조되었고, 인간은 죄인 이기에 욕구도 죄 속에 놓여 있지만 그저 욕구 자체가 죄라기 보다는 욕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연구를 이어가려고 한다.

3) 욕구와 하나님의 형상

(1)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욕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인간 속에 있는 욕구도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욕구는 매우 좋은 것이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매우 좋았다고 말씀하신다. 욕구가 하는 좋은 일들은 더 나아가고 성취하려는 욕구로 인해 세상과 다른 사람에게 이바지할 수 있고, 먹고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욕구로 인해 행복을 누리기도 한다. 때로 모험심을 자극해서 새로운 세상을 탐구하여 삶을 풍성하게 만든다. 나아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갈망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기도 한다. Paul Tripp(2009)은 친밀한 갈망이 우리 본성에 심겨져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Arterburn(2008)은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들어두셨고 특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욕구)을 지으셨다고 하였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색하고 찾고 받아들이기 전까지 그 공백을 채우려고 다른 무엇인가를 열심히 추구한다. 결국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채울 수 없는 것이다. 이 세상 것들을 계속 찾아다녀도 공허감을 느끼는 이유이다.

(2) 죄로 인해 타락했다.

선하게 창조되었던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했다. 이로 인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며 욕구 충족만을 원하는 상태가 되었다. Tripp(2009)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죄 때문에 모든 소망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찾으려 한다. Arterburn(2008)에 의하면 타락으로 인해 이기적인 욕구 충족만을 원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된 세상에 태어나며,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한다. 죄악된 본성은 즉각적 만족을 요구하며, 당장의 쾌락을 추구한다. 타락 이후 우리의

욕구는 상당수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며, 그 때문에 통제되어야 한다. 우리의 욕구가 타락한 것을 사탄이나 하와 때문이라고 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저 유혹만 할 뿐 선택은 우리가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국 욕구를 통제하지 못해서 행하게 되는 모든 것은 자신의 책임인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 욕구를 주셨지만 잘못 사용한 것은 우리인 것이다. 결국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만드신 그 자리에 다른 무엇인가를 두려워 시도하는 것은 우상숭배의 죄가 된다.

(3) 하나님 안에서 욕구도 회복될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잘못된 것들일 뿐인 경우가 많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 욕구의 결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원하는 바를 변화시키고자 하신다(Tripp, 2009). 욕구가 변화된다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나의 욕구가 하나님의 목표와 일치하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과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므로 나의 욕구가 하나님의 목표와 일치해야 한다. 나의 욕구를 하나님의 목표로 바꾸는 일은 쉽지 않다. 이를 위해 개인적 편안함과 자기만족이라는 목표에서 돌이켜야 한다.

둘째, Arterburn(2008)의 말대로 성령의 열매로 욕구를 채워야 한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령의 열매를 매력으로 느끼고 금지된 열매에 대한 욕구는 줄어든다. 또 우리의 욕구가 성령의 열매로 채워지지 않으면 금지된 열매는 점점 더 매력을 갖게 된다. 우리의 욕구가 금지된 열매로 채워질 때 성령의 열매에 대한 욕구는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때 사탄의 임무는 우리를 유혹하여 성령의 열매가 아닌 금지된 열매로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다. 우리는 이때 유혹에 굳게 맞서서 사탄을 대적해야 하며 성령의 열매로 욕구를 채우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개혁주의 인간론에 비추어 본 기독교인의 온전한 형상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 그리고 창조물을 보존하고 개발하는 삶을 위한 것이다. 우리의 욕구 또한 그러한 자아상에 맞추어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맡겨진 자연을 위하여 쓰여야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이 된다(Hoekma, 1990).

4) 욕구와 죄의 문제

박안나(2019)는 인간이란 자신의 욕구를 추구하는 존재로서 최악된 자아가 그 결정의 주체인데, 인간이 성숙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존해야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에 성경적 상담의 목적은 하나님을 의존하기 위해 자기 욕구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욕구가 언제 어떤 때 우상이 되는가? Arterburn (2008)은 모든 죄는

빛나간 욕구의 결과라고 보았다.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는 다른 어떤 것으로 욕구를 채우려고 할 때 생기는 결과인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욕구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거나 높일 때 우상이 된다. 창조물 자체는 죄가 없다. 그것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계셔야 할 자리에 그것을 두고 높일 때 우상이 된다(Tripp, 2009). Arterburn(2008)도 자신이 욕구들간에 균형을 잃고 욕구가 우선 순위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고백한다. Powlison(2012: 216)은 욕구가 선물을 주시는 분은 무시한 채 좋은 선물만을 향하는 이상승배적 갈망이 될 때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욕구는 선물을 얻든지 못 얻든지 혹은 잃든지 선물을 주시는 분에 대한 강렬한 소망이라고 하였다. 때로 인간은 허황된 영광을 추구하여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기도 한다. 또 자신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도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는 교만한 마음이 되기도 한다.

둘째는 모방이 우상이 되기도 한다. 영성학자인 헷볼트리니티 교수 이경희는 Rene Girard의 모방욕망이론으로 성경을 해석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욕심이 가득한 갈망을 욕망이라고 하면서 이 욕망이 만들어진 계기가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며 정신 역동에서 말하는 어린 시절 성적으로 충족되지 않은 리비도 때문도 아니고, 남의 것을 모방함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다 사면 나도 사고 싶고, 맛있는 음식이 SNS에 올라오면 나도 먹어보고 싶고, 좋은 집에 이사한 것을 보면 나도 새 집에 이사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주변에서 보이는 것들이 내 욕구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 많다. 특히 우상이 될 만한 것들임에도 모두가 가지고 있거나 추구한다고 할 때는 함께 추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자신의 욕구가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인지 모방인지 구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우상이란 어디에 순종하느냐의 문제이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롬 6:16).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니면 죄의 종이 되는 존재이다. 욕구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용하느냐, 죄의 종으로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은 정반대가 될 수 밖에 없다.

넷째, 두려워하는 것이 우상이 된다. 우상 중 가장 많은 것이 사람에게 대한 두려움이다. 특히 다른 사람의 의견과 인정에 의지하는 것을, 성경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라고 부른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교만과 불신과 함께 우상숭배적인 마음의 핵심적 문제 중 하나이다(Powlison, 2012).

4. 성경적 욕구 상담의 제안

성경적 상담에서 마음 즉 욕구를 다룰 때 주의할 점은 율법적 접근이다. 문제를 다룰 때 많은 이들은 문제 속에서 도덕적으로 그른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쉽다. 기독교인도 마찬가지다. 성경을 마치 도덕률인 양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으니 잘못됐다는 접근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공감과 소통을 막고 행동의 변화를 추동하지 못한다. Powlison은 기독교 상담사가 범할 수 있는 실수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하지 않고 도덕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복음에 기초한다고 하면서도 도덕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율법적인 접근인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복음에 기초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Powlison은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는 도덕적인 접근이 유익하지만 피상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Powlison의 말대로 외형적 변화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내면의 복잡성이나 내면의 동기에 대한 관심을 위협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도덕적인 접근은 내면에 접근하는 것과는 반대이다. 그러므로 행동과 결과를 다루기보다 마음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김준, 2018). Paul Tripp과 Timothy Lane(2009: 60)도 변화에 대한 행동주의적 접근이 공허하며, 그것은 기독교적으로 접근될지라도 성경의 명령을 복음의 맥락에서 갈라놓는다고 표현했다.

1) 욕구결핍과 성경적 욕구채움 방법

욕구는 우리의 신체적 정서적 영적 생존에 필수 요소이다. 그러함에도 채워지지 않는 것은 결핍으로 남는다. 만족감이 없다고 느낀다면 욕구 중 하나가 충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Arterburn, 2018). 욕구의 결핍으로 고통당하는 내담자를 만날 때 상담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담자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므로 상담자는 욕구결핍과 욕구채움 관련 성경적 인식이 필요하다. 이에 상담자가 내담자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에 대한 측면에서 접근해 보려고 한다. 욕구채움과 관련된 성경적 연구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 Arterburn과 Debra Cherry(2008)가 쓴 “하나님이 허락하신 욕구”라는 책에서 제시한 내용을 기초로 다른 연구들을 참고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결핍의 고통을 이해해야 한다.

죄의 문제도 결핍과 관련이 된다. 내담자가 가진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죄로만 접근

할 것이 아니라 결핍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해하고 공감해 줄 필요가 있다. 그 고통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욕구는 일부 채워지고 있을 것이다. 일탈도 쾌락을 통해 고통을 경감시키려는 갈망에서 시작된다. 즐거움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인간이 욕구의 갈망을 채울 수 없어 고통스러워질 때 고통을 없애고 싶은 마음에 더 큰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결핍을 채우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 보지만 그러함에도 채워질 수 없을 때 죄된 방법까지 써서 쾌락과 욕구를 채우는 것이다. 내담자의 죄성을 이런 눈으로 볼 필요가 있다. 얼마나 고통스럽기에, 죄가 되는지 알면서도 쾌락을 추구하는지 궁금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

(2) 욕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의 필요를 잘 모르면 다른 것으로 대체하여 부적절한 것으로 욕구를 채우려 하기 때문에 결국 욕구 자체를 불건전하거나 위험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한다. 또한 인간은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모를 때가 많기에 남의 욕망을 모방하기도 한다. 이경희(2023)는 Rene Girard의 말을 인용하면서 인간은 허함을 채우기 위해 모방욕구를 가지게 된다고 하면서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않고 쫓아가는 것이 모방 욕망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길들여지지 않은 망아지처럼 날뛰며 폭력적인 방향으로 진화하며 많은 죄의 근원이 된다. 그러므로 Arterburn(2008)이 제시한 것처럼 결핍된 욕구는 무엇인지, 어떤 욕구를 채우고 싶은지 아주 사소한 일에서 질문이 필요하다. 내가 오늘 사고 싶은 것은 진짜 갖고 싶은 것인가? 내가 진행하는 일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남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등. 그리고 실제 갈망하는 그 욕구를 채우도록 돕는 것이 건전하다.

(3) 욕구에 대해 평가가 필요하다.

욕구를 채우는 방식에는 건전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존재한다. 우리는 가장 건전한 선택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충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키는지, 선택한 방식이 만족스러우며 건전한지 질문이 필요하다. 바른 욕구라도 과도하게 혹은 그릇된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때로는 한가지 욕구를 사용하여 다른 욕구를 채우려 하기도 한다. 실제의 필요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여 부적절한 것으로 욕구를 채우려 하기 때문에 욕구 자체를 불건전하고 위험한 것으로 만들기도 한다. 욕구를 채우기 위한 우리의 선택이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의깊게 관찰한다면 우리는 그릇된 결정을 내림으로 덧없는 욕구에 쉽사리 굴복하는 일은 줄어들 수 있다.

(4) 하나님께 맡기도록 돕는다.

Powlison(2012: 125)은 물에 빠져가는 사람은 물 밖의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

였다. 우리도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의 욕구를 잠잠케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이다. Arterburn(2008)은 Harry Schaumburg의 말을 인용해 자신의 수단으로 천국을 맛보려는 사람은 통제 불가능한 욕구로 가득 찬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된다고 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채우시고, 그 능력으로 삶을 변화시킬 것임을 믿고 맡기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운전할 수 없음을 시인하는 것이며,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므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의 궁극적 유익을 위함임을 믿는 것이다.

James W. Sire(2007, 42-46)는,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허(God-shaped vacuum)가 있다”는 Pascal(1623)의 말과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 평안이 없다”는 Augustine(354)의 말을 인용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만 만족감을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5) 욕구 채움은 공동체 안에서 살 때 가능하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기본적인 사랑의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문제가 있을 때 혼자 직면하지 않아도 되는 소속감을 공동체 속에서 누릴 수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공동체를 살펴 욕구를 채우는 환경인지 점검해 보고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서로 욕구채움이 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6) 원하는 것과 필요를 구별한다.

원하는 것이 실제 필요와 맞지 않는 경우도 많다. 광고를 보면서 꼭 필요할 것 같아 구입하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런 경우에는 욕구충족을 뒤로 미루는 방법이 도움이 된다. 나아가 욕구 채움에 대해 다룰 때 주의할 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을 욕구 채움의 도구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많이 한다. 문제는 예수님을 심리치료사처럼 욕구와 나의 빈 공간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치부해 버리는 면이다. 그러나 주님은 필요를 채우기 위해 서가 아니라 거룩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Tripp & Lane, 2009).

둘째, 꼭 해당 욕구가 채워져야만 행복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가 채워져야 행복감을 느끼게만 만들지 않으셨다. 거룩함을 입어도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 은혜의 결과는 일상의 작은 일에서 적용되어야 한다(Tripp & Lane, 2009).

셋째, 욕구충족이 목적이 되지 않아야 한다. 자신의 결핍된 욕구에만 초점을 맞추면 자신의 갈망과 욕구에 얽매어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보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데 골몰

하게 되어 통제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Arterburn, 2008). Powlison(2012)도 욕구충족이 목적이 되면 죄에 대한 자각을 막는다고 경계하였다.

2) 욕구조절

(1) 욕구조절의 필요성

욕구는 자칫 잘못하면 탐욕으로 가거나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며, 염려로 갈 수 있으므로 조절이 필요하다. 실제로 인간은 모든 욕구를 채울 수 없으므로 욕구를 조절하며 살고 있다. 또한 욕구는 불과 같아서 통제 아래 있을 때는 사람을 이롭게 하지만 통제에서 벗어나면 관계를 파괴하고, 인간의 자유를 손상시키며,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 욕구가 통제에서 멀어질수록 다시 통제하기가 더 어려워진다(Arterburn & Cherry, 2008).

왜 잘 조절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먼저 Powlison(2012)에 의하면 이 세상의 일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거라는 환상 때문이다. 둘째는 욕구채움이 되지 않았을 경우 생긴 고통이 깊을수록 더 욕구를 추구하고 싶은 갈망 때문이다. 셋째는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도록 부추기는 환경도 무시하지 못할 요인이다.

그러면 조절이 가능한가? 실제로 조절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경우도 많다. 조절한다고 하지만 억압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튀어나오는 경우도 많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욕망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론의 기초로 삼는다. 그러나 원하는 것은 바꿀 수 있다. 특히 하나님은 사람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것을 바꾸시며(Powlison, 2012) 제멋대로 방치된 욕구도 바꾸거나, 바로잡을 수 있다(Arterburn, 2008). 특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은 여러 기독교인이 증언하고 있다. 받고 싶은 갈망이 변하여 주고 싶은 욕구로 바뀌는 것이 일례다.

(2) 조절 방법

Arterburn(2008)이 제시한 구체적인 조절방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스로의 힘으로 욕구를 제어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 우선이다. Arterburn은 욕구가 삶을 장악해 엉망인 상태였다가 자신의 욕구를 제어할 수 없음을 깨닫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 오히려 욕구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고백한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맡길 때 회복을 향한 여정이 시작된다.

둘째, 목표를 바꾸는 것이다. 욕구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는 것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욕구를 채우는 방법이 된다. Powlison

은 채워질 수 없는 욕구가 블랙홀과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삶만이 욕구를 만족시킨다고 하였다. 그렇다고 욕구를 알 필요도 없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길 원하신다. Tripp & Lane(2009)은 그리스도에게서 만족을 찾는다면 필요를 채우려고 해매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셋째, 욕구는 원하는 그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돈에 대한 갈망과 욕구는 채워도 채워질 수 없지만 나눠주려는 긍휼의 마음으로 돌이키면 만족을 찾기도 한다. 꼭 그것이 아닌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욕구가 채워질 수 있다는 반전이 있다.

넷째, 욕구로 인한 두려움에 때로는 맞서야 할 때도 있다. 안전과 통제, 예측 가능성을 갈망하면서 미지의 환경이나 새로운 시도에 불안해 하는 내담자에게 두려움에 의연히 맞서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이런 때에도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새도 떨어질 수 없음을 아는 믿음이 두려움을 잠재워 줄 것이다.

다섯째, 욕구 목록을 만들고 한 번에 하나의 욕구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다. 자신 있게 절제할 수 있는 욕구를 선택하여 그 욕구부터 공략하여 충분한 성공을 얻을 때까지 그 욕구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욕구조절에 대해 상담으로 적용이 가능한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욕구를 강하게 자극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② 어떻게 만족시키고 있는가를 점검한다. ③ 선택한 방법이 만족스럽고 건전한지 살핀다. ④ 만족이 되지 않는다면 만족을 위해 쓰는 다른 방법은 무엇인지 점검해 본다. ⑤ 평가를 통해 욕구가 건전한 방법으로 충족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불건전한 욕구를 포기할 준비가 되었는지 살핀다. ⑥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선택이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의깊게 헤아린다. 이는 덧없는 욕구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 방법이다. ⑦ 건전하게 욕구를 채우는 방법을 배우겠는지 선택한다.

3) 욕구 충돌 다루기

욕구를 다루다 보면 육과 영, 사람과 하나님, 자신과 다른 사람들, 옳음과 그름 등 두 욕구 사이의 충돌이 내적 갈등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사도바울도 마찬가지였다. 성경적 상담자는 이것을 단순히 욕구를 누르거나 조절해야 할 문제로 치부하기보다 두 가지 마음의 충돌로 다루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내

답자는 그동안 조절과 억압의 방법으로 다루어 보았지만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욕구의 충돌로 다른 논문이나 책을 찾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욕구의 충돌로 이해한다면 내담자에게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기에 사도바울의 고백을 통해 방법을 찾아보려고 한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롬 7:15-25).

선을 행하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악을 행하는 사도바울의 안타까움이 전해진다. 선을 원하지만 악을 행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딜레마이다. 그러므로 모두가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고 욕구가 충돌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선을 행하고 싶지만, 육신의 몸으로 생각해 보면 다른 편안함과 권력과 사람들의 평판이나 쉬운 길을 선택하고 싶은 것이다. 즉 선을 행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죄의 길을 따르고 싶은 욕구가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것이다. 사도바울이 이를 대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자신에 대해 인식하고 시인한다. 18절에 보면 자신의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고 표현한다. 간절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지만 되지

않는 자신을 인식한 것이다. 둘째는 그것이 죄라고 고백한다. 21절부터 보면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악이 함께 있고, 오히려 죄가 자신을 사로잡는 것을 보고 있다.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고, 죄된 상태를 인식하는 것이다. 셋째는 애통한다. 24절을 보면 사도바울은 고통으로 절규한다. 자신의 상태를 보니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싶은 절망을 느낀 것이다. 넷째, 사도바울은 하나님께로 초점을 옮긴다. 절망하던 사도바울이 곧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초점을 옮기니 감사함이 솟구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이겨나갈 것임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을 뿐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나아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고백한다(롬 8:1-3). 다섯째,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해결된다.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함으로 육신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다(롬 8:10).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 된다.

이런 사도바울의 방법으로 내담자의 욕구충동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상반되는 욕구에 대해 인식하도록 도와야 한다. 인식하는 것은 혼란스런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 죄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 죄라는 고백은 애통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애통함은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지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될 수 있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내담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지에 대한 욕구를 공감해주고 인식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초점을 둘 수 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함께 나눌 수 있겠다. 죄에서 해방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며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다름으로 쓸데없는 죄책감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필요도 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내담자들이 옳고 그름 사이의 고민, 때로는 상반되는 욕구로 인해 갈등한다. 이 때 내담자의 욕구간 충돌 즉 갈등을 성경적으로 바라보고 다뤄주는 것은 내담자의 변화와 성장에 필수적일 것이다.

Ⅲ. 닫는 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담에서 욕구를 다루긴 하지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경우는 많

지 않다. 욕구를 집중적으로 다룬 상담 관련 논문도 많지 않다. 욕구가 인간 행동의 근원이라고 한다면 집중적으로 다룸이 필요하다. 이 글을 통해 욕구를 상담에 어떻게 접목해야 하는지 연구하여 제안하였다.

먼저 많은 기독교인들이 욕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았다. 우리가 만나는 내담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안타깝게도 부정적으로 보면 행동의 이유인 욕구를 제대로 다룰 수가 없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으로 욕구를 설명하였다. 욕구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나 죄와 함께 욕구도 타락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잘못된 방법으로 욕구를 채우거나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구에만 초점을 두어 죄(우상숭배)를 짓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과 주신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욕구도 회복될 수 있다. 자신만을 위하는 욕구가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과 창조세계를 도울 수 있는 욕구로 회복이 가능하다. 우리가 만나는 내담자의 결핍된 욕구도 채움이 가능하고, 어긋나고 잘못된 방법들도 변화가 가능하다. 하나님은 욕구를 바꾸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

이에 성경적 욕구 상담 방법을 제안하였다. 욕구를 채우는 방법들로는 첫째 결핍이 주는 고통에 대해 성육신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공감해 주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 둘째, 어떤 욕구가 결핍되었고, 어떤 것이 모방으로 인한 욕망이 되었는지, 또 정말 원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욕구에 대해 알아야 한다. 셋째는 욕구를 평가한다. 욕구를 채우는 방식이 건전한지, 어떻게 충족시키는지, 선택한 방법은 만족스러운지, 그릇되게 사용되는 것은 없는지, 욕구를 채우기 위한 우리의 선택이 다른 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점검한다. 넷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담자의 욕구를 다루시고 채우시며 바꾸어가시는 분이심을 믿고 함께 맡기는 것이다. 다섯째, 공동체를 통해 욕구를 채우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기에 공동체 속에서 욕구를 채우는 방법을 찾아본다. 여섯째, 원하는 것과 필요를 구분하여야 한다.

또한 성경적인 조절 방법도 제안하였다. 스스로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선이며, 욕구가 목표가 되지 않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둔다. 또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만족감이 채워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하고, 때로는 욕구로 인한 두려움이 올 때 맞서야 할 때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내담자와 함께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조절 방법에 대해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도바울의 고백을 통해 내면의 욕구충동에 대한 대처법을 제안하였다. 욕구 충동으로 인한 자신의 상태에 대해 인식하며 말로 표현하는 것이 우선이며, 죄된 상태를 인식하고 고백하며, 절망하듯 충분히 애통해 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그 후에는

하나님께 초점을 옮겨 육신이 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심을 고백하며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해결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내적 욕구갈등까지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연구를 통해 욕구로 상담하는 것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더 넓어지길 바란다. 나아가 상담자가 욕구에 대한 이해와 관점을 새롭게 함으로 깊이있게 내담자의 욕구에 접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내면의 욕구 충돌에 대한 이해로 내담자를 더 잘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이 접근을 통해 기독교인들이 욕구에 대한 막연한 터부시가 아니라 직면하고 평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길 기대한다.

본 논문은 문헌연구로 욕구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기반으로 상담에서 욕구를 집중해서 다룰 수 있도록 상담자에게 필요한 관점과 대처법을 고찰한 것이다. 특별히 욕구를 채우거나 조절하기 위한 방법 혹은 욕구 충돌을 다루는 법에 대해 다루었다. 그러나 이론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상담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구체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욕구로 상담한 사례연구를 통해 검증되기를 기대한다.

- 논문 투고일: 2024년 01월 22일
- 논문 수정일: 2024년 03월 01일
- 게재 확정일: 2024년 03월 07일



√ √ √ √

【참고문헌】

- 김준 (2021). **성경적 상담과 하나님 관점의 이야기**. 서울: 그리스.
- 김준 (2018). 기독교 상담과 인지치료: 마음의 성경적 의미 고찰을 통한 성경적 접근. **복음과 상담**, 26, 59-85. <http://dx.doi.org/10.17841/jocag.2018.26.2.59>
- 김준수 (2012). 인간 동기의 심리학적 이론과 성경적 이해. **복음과 상담**, 18, 106-130. <http://dx.doi.org/10.17841/jocag.2012.18.106>
- 박안나 (2019). 기독교 상담에서 대상관계이론 적용에 대한 고찰: Fairbairn의 대상관계이론과 Hoekema의 개혁주의 인간론을 중심으로. **복음과 상담**, 27(1), 149-175. <http://dx.doi.org/10.17841/jocag.2019.27.1.149>
- 이경희 (2023). **욕망과 영성**. 서울: 비아토르.
- 정은숙 (2014). 동기 이론의 기독교적 함의: 자기결정성 이론과 자유의지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5(1), 197-221.
- 최성미 (2018). 성경적 상담자의 정체성 경험과 의미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성미 (2018). 동기변화를 통한 부부 갈등의 회복-성경적 상담의 관점으로. **신학과 실천**, 58, 447-473. <http://dx.doi.org/10.14387/jksph.2018.58.447>
- 황규명 (2010). **성경적 상담 원리와 방법**. 서울: 바이블 리더스.
- Arterburn, S. (2008). **욕구 다스리기**(안광현 역. *Take control*). 서울: 도서출판 소망. (원전 2006 출판).
- Arterburn, S. & Cherry, D. (2008). **하나님이 허락하신 욕구**(김태곤 역. *Feeding your appetites*). 서울: 생명의 출판사. (원전 2004 출판).
- Crabb, L. (1995). **성경적 상담학 개론**(전요섭 역, *Basic principles of biblical counseling*). 서울: 아가페문화사. (원전 1975 출판).
- Fow, H. (2007). **기독교와 심리학**(유명복, 김윤아 역. *Psychology in Christian perspective*). 서울: 기독교연합출판사. (원전 1995 출판).
- Glasser, W. (2016). **당신의 삶은 누가 통제하는가**(김인자 역. *Control theory*). 서울: 한국심리상담연구소. (원전 1984 출판).
- Green, A. E. (2009). **기독교세계관으로 가르치기**(현은자 역, *Reclaiming the future of Christian education*). 서울: 도서출판 CUP. (원전 1998 출판).
- Hoekman, A. A. (1990). **개혁주의 인간론**(류호준 역, *Created in God's image*).

-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원전 1994 출판).
- Powlison, D. (2012). **성경적 관점으로 본 상담과 사람**(김준 역. *Counselling and human condition through the lense of scripture*). 서울: 그리심. (원전 2003 출판).
- Reeve, J. (2003). **동기와 정서의 이해**(정봉교, 현성용, 윤병수 공역. *Understanding motivation and emotion*). 서울: 박학사. (원전 2000 출판).
- Sire, J. W. (1985). **기독교세계관과 현대사상**(김현수 역. *The universe next door*). 서울: IVP. (원전 2004 출판).
- Tripp, P., & Lane, T. S. (2009).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김준수 역. *How people change*). 서울: 생명의 말씀사. (원전 2006 출판).
- Vitz, P. (2010). **신이 된 심리학**(장혜영 역. *Psychology as religion*). 서울: 새물결 플러스. (원전 1997 출판).
- Welch, E. (1997). What is biblical counseling, anyway? *The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16(1), 2-5.
- 강영희 (2014). 생명과학대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438101&cid=60261&categoryId=60261>에서 2023년 6월 1일 인출.
- 고영복 (2000). 사회학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521039&cid=42121&categoryId=42121>에서 2023년 6월 1일 인출.
- 김춘경, 이수연, 이윤주, 정종진, 최용용 (2016). 상담학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673353&cid=62841&categoryId=62841>에서 2023년 6월 1일 인출.
- 네이버두산백과사전(2024).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431430&cid=40942&categoryId=31531>에서 2023년 6월 1일 인출.

[Abstract]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Christian Counseling through Understanding Biblical Needs

Kim, Sung Kyung*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lay the foundation for needs counseling by suggesting a method of using the biblical understanding of needs and needs for biblical counseling. Although needs is the reason for important behavior, it sees needs negatively, is indifferent, and cannot focus on counseling. First of all, we look at needs from the biblical perspective of psychological need theory and creation, corruption, and restraint. Humans were created well in the form of God, but their needs have also been corrupted by sin. However, needs can also be restored through Christ's restraint. Next, the time when needs become idols is explained by the heart that values God, imitation, objects of obedience, and fear. Finally, it is a way to use needs for biblical counseling. First, we look at the impact of deprivation on the client and the method of filling up biblical needs. Second, it summarizes how to control needs such as entrustment to God, goal change, substitution, and confrontation. Third, although there is a needs, it proposes a method of viewing and dealing with the conflict between needs biblically, such as inability and worries between right and wrong.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study of counseling on biblical needs.

Key words: needs, motive, biblical counseling, needs control, a conflict of needs

* Needs Coaching Research Institute / Director